

“올 추석 선물은 우리돼지 한돈으로”

37개 브랜드사 68종 선물세트 선봬 한돈몰서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돼지 한돈 선물세트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만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네극장에서 ‘추석 맞이 한돈 선물세트 포토행사’를 열고, 한가위를 맞아 준비한 한돈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한돈 선물세트를 소개하며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과 명절 선물로서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가족과 친지, 고마운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한돈 선물세트가 실속과 정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명절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추석 맞이 한돈 선물세트 할인행사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을 통해 다양한 한돈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총 37개 브랜드사가 참여해 68종에 이르는

다채로운 구성의 한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제품별로 최대 30%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가족의 식탁에 올릴 한돈은 물론, 추석을 맞아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까지 비교적 부담을 덜고 준비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대표 식재료인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우리돼지 한돈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넉넉한 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을 맞아 우리돼지 한돈이 가족과 이웃을 잇는 정겨운 명절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가위를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돼지 한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석 한돈 선물세트가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좋은 선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맞이 한돈 선물세트는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풍성한 한가위 밥상과 함께 감사와 정을 나누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이 ‘추석 맞이 한돈 선물세트 포토행사’에서 한돈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목우촌, 국산 축산물 활용 간편식 선봬



▲농협제공

직화곱창·무뼈닭발부터 옛날통닭까지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직화양념곱창’을 비롯 한 간편식 4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매콤한 특제 양념을 더한 직화양념곱창과 직화무뼈닭발은 찰싹에 구워 은은한 불향과 쫄깃한 식감을 살렸으며, 한마리와 반마리 용량으로 출시된 옛날통닭은 얇은 튀김옷을 입혀 바삭한 식감을 구현했다.

박철진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국산 원료를 활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맛과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서울우유, 당 45% 낮춘 ‘비요프 초코링 당저감’ 출시

올해 누적 판매량 9억 4000만 개 돌파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5% 낮춘 ‘비요프 초코링 당저감’을 새롭게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건강한 식습관과 당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선택할 때도 맛뿐 아니라 영양성분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는 기존 메가 브랜드에 당저감 제품 라인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저당 제품을 선보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우유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당 섭취를 줄이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비요프 초코링 당저감’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2004년 3월 첫 선을 보인 ‘비요프’는 생기 넘친다는 뜻의 ‘비(Vi)’와 요거트를 짙은 감각으로 표현한 ‘요트(Yott)’의 합성어로, 즐겁고 활기찬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요거트 문화를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은 국내 최초 플립형 토핑 요거트다.

서울우유의 고품질 원유로 만든 요거트에 다양한 토핑을 더하는 차별화 전략과 소비자가 직접 ‘찍어 먹는’ 참신한 패키지로 먹는 재미까지 선사하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판매량은 약 9억 4

천만 개를 돌파했다. 비요프 제품을 일렬로 늘어놓았을 경우, 약 4만km 둘레의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양에 달한다.

비요프는 다양한 입맛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제품 라인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초코링 ▲크런치볼 ▲쿠기 앤크림 ▲베리콩포트 등 총 4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지식 재산권(IP) 라이선스 협업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 전용 ‘비요프 아이스크림’을 본격 출시한데 이어, 7월에는 대만과 홍콩으로 비요프 수출을 본격 개시했다.

대만 세븐일레븐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현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홍콩에서도 웰컴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이



▲서울우유제공

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국가로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비요프 초코링 당저감’은 비요프의 대표 스테디셀러인 ‘초코링’을 기반으로, 당 섭취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안하는 제품이다.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5% 낮추면서도 비요프 특유의 요거트와 초코링을 함께 즐기는 맛과 재미를 살렸다. 발효액에 설탕을 빼고 알룰로스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요프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초코링’을 첫 번째 당저감 제품으로 선정해, 기존 초코링과 함께 소비자의 취향과 식생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확장했다.

신제품 ‘비요프 초코링 당저감’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은 물론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발효유마케팅팀 이은경 팀장은 “동시에 당 섭취를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비요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당저감 초코링’을 새롭게 선보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우유자조금, 우유 속 천연지방과 영양성분의 조화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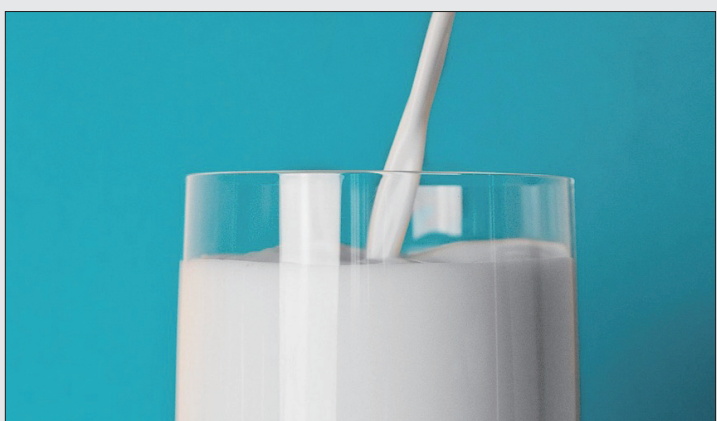
칼슘·단백질·비타민·무기질 풍부...“다양한 영양 가치 주목해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유와 유제품에 함유된 지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우려보다 우유의 전체적인 영양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연구(Nutrition Research)’에 게재된 메타분석 및 코호트 추적 연구를 근거로, 우유 등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트랜스지방산이 심혈관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장기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제품의 천연 트랜스지방산은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도 천연 트랜스지



▲우유(픽사베이)

방산이 함유된 유제품 섭취 증가가 혈중 지질 등 심혈관·대사 건강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특정 성분만을 기준으로 우유의 건강성을 판단하기보다 식품 전체의 영양 구성과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비

며, 우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질환 위험이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우유는 특정 성분 하나로 평가하기보다 칼슘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연구를 계기로 우유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 전체적인 영양 가치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유는 별도의 조리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일상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활용도가 높은 식품”이라며 “성장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균형 잡힌 식생활 속에서 우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